

# 전북은 노조 '군산시 금고 탈락' 규탄

### 군산시 각성 촉구 기자회견... "향토기업 외면·홀대 행위, 도민 자존심 짓밟는 것"

전북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최강성)이 군산시 금고 선정배제와 관련해 향토기업을 외면하고 홀대 행위이자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은행 노조는 19일 전북은행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가 지난 40여 년간의 인연을 끊고 시금고에서 전북은행을 배제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던 군산시가 정작 향토은행이자 지역경제의 큰 젖줄인 전북은행을 외면하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시중은행의 손을 들어줬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어 "전북은행은 최근 2년6개월 동안 군산에서 354억 원이라는 부실 여신에도 불구하고 1조1,70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고, 지역인재 채용과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면서 "신의를 저버린 군산시장과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태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5000여 전북은행 가족, 150만 고객, 상공회의소, 한국노총 전북본부 및 5개 지방은행 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노조는 또 문동신 군산시장에게 ▲

## 지역경제 말살하는 '군산시 금고선정' 규탄 기자회견



전북은행 노조는 19일 전북은행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시 금고 선정배제와 관련해 향토기업을 외면하고 홀대 행위이자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토기업인 전북은행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가, ▲전북은행 직원들의 피와 땀을 아는가, ▲전북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낸 전북은행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가, ▲누구를 위

해 무엇을 위해 시금고를 선정하는가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공개 질문을 실시한 뒤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4일 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8,100억 원대 일

반회계와 기금을 관리할 제2금고로 NH농협은행을, 2,080억 원대 특별회계를 관리할 제2금고로 KB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고민형 기자

## 어린 해삼 30만 마리 무상 방류

### 도 수산기술연구소, 군산·고창·부안 연안에

전북도가 어린해삼 30만 마리를 무상 방류한다.

19일 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린해삼 30만 마리를 군산과 고창, 부안 연안에 무상 방류한다. 이번 방류는 어린 해삼은 지난 6월 자연산 어미를 구입해

인공채란과 유생관리 과정 등을 걸쳐 약 5개월간 사육한 것이다.

바다의 인삼이라 불리는 해삼은 방류효과가 좋고 중국 수출 효과 품종으로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방류 2~3년 후에는 약 5억 원의 소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정읍 GRAND 취업박람회 '성황'

### 264명 대상 원스톱 구인활동

'2016 정읍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지난 18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정읍과 전주 등 도내 소재 우수기업인 (주)세창스틸과 (주)대유글로벌, (주)아시아, 케이넷(주), (주)리, (주)참프레 등이 대거 참여했다.

박람회장에는 청·장년과 전북과학대학교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특성화고 재학생 및 경력단절 여성, 노인 일자리 구직자, 장애인 일자리 구직자 등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 900여명이 방문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에 나섰다. 14개 참여기업들은 모두 161명을 채

용할 계획으로, 참가자 264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구인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모두 8명의 채용이 확정됐고, 기업들은 앞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채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또 이와 별개로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에서는 채용 설명회를 가져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한편 박람회 현장에서는 16개소의 채용관이 운영됐고, 정읍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선택도 검사관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홍보관, 구직활동확인관을 운영하며 구직자 맞춤형 활동을 펼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 도, 쌀 대책 특별자금 150억 지원

전북도가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대책 특별자금 150억원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쌀 대책 특별자금은 도비 40억원과 시·군비 110억원으로 조성되며, 집행은 시·군과 농협, 농민단체와 협의해 추후에 결정한다.

도는 또 농림수산발전기금(대출가능액 1750억원)을 활용, 쌀값 폭락에 대응해 벼 수매자금으로 개인은 5억원, 법인은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율은 1~2%로 대출된다. 도 관계자는 "쌀값 폭락에 따른 도내 농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농민들이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김영석 해수부 장관, 전북 정책현장 방문

### "군산항 1·2부두 기능 전환 중장기적 접근" "석탄재 매립, 반대 주민 설득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전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류종빈 군산청장에게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본보 19일자 8면)

이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동지개 양식장(김제 소재), 만물고기마을(완주 소재)을 차례로 돌며 지역 내 해양수산 현안을 살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제3차 항만 기본계획과 관련해 군산항 항만물류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군산항 1·2부두의 기능 전환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군산항 계획 수심이 12m인데 현재 7.2m밖에 확보되지 못해 컨테이너 선박 등이 입출항 시 어려움이 있다"면서 "토사 준설 속도를 더 내서 오는 2018년까지 계획 수심에 접근하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새만금산업단지의 석탄재(무연탄) 매립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해수부가 석탄재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용역 기관 등에 맡겨 두지만 말고 매립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 가자"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군산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여객터미널은 다중이용시설이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상운송 안전에 철저히 하고 대테러 방지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컨테이너 부두에서는 "군산항은 중국과 최단거리 항만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중국 수출 교두보 역할 및 물동량 창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을 찾은 김 장관은 "새만금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국책사업 중 하나인 만큼 새만금 신항을 물류와 해양레저, 관광 기능이 복합된 미래 지향적인 명품 항만으로 건설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동지개 양식장과 물고기 마을을 방문한 김 장관은 "전북도는 내수면 어업이 발달해 있다"면서 "내수면 양식 활성화와 더불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체험 학습관'을 만들어 국민의 힐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지역 해양수산 관계자 간담회에서 "군산항은 국내외 물류 및 여객수송 항만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녔다. 특히 전북지역의 내수면 어업은 수산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도 정책적인 지원과 어업인 소득증대 및 복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 LX공사,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경기도에 제공

### 실증단지 조성 업무협약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경기도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

LX공사는 19일 성남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도와 관교로시대를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LX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관교로시대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고정밀디지털지도 제작, 위성측위시스템(GNSS) 인프라 구축, 위치정보 생성 기술 등을 제공하고 단지가 조성되는 동안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뉴시스

## 전주 혁신에코르 2단지 '에너지 절약왕' 선정

전북개발공사가 운영하는 혁신에코르 2단지(전주완주혁신도시)가 '에너지 절약왕'으로 선정됐다.

19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혁신에코르 2단지는 전북도가 후원한 '2016 녹색이파트 에너지절약왕'으로 선정됐다. 이번 에너지절약왕에는 도내 4개 아

파트가 선정됐는데, 지난 7월부터 2달간 전기사용량 8% 이상 절감했다. 선정된 4개 아파트 가운데 임대 아파트로는 혁신에코르 2단지가 유일하다.

에코르 2단지는 이번 선정으로 50만 원 상당의 LED등을 지원받게 됐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sj고창군산림조합  
조합장 김 영 건

한전 고창지사  
지사장 허 태 현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